

## 한국의 대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투자 현황과 비즈니스환경 분석

**이재영** 구미·유라시아본부장 (lgy@kiep.go.kr, Tel: 044-414-1089)

**이철원**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선임연구원 (cwlee@kiep.go.kr, Tel: 044-414-1071)

**민지영**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jymin@kiep.go.kr, Tel: 044-414-1095)

## 차 례

1.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출범과 FTA 추진 현황
2. 대EAEU 투자 현황
3. EAEU 비즈니스환경
4.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EAEU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
  -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이 세계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바, 한국의 대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한·EAEU FTA 체결이 필요함.
  - EAEU는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이며, 2025년까지 유라시아 연맹으로 심화·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종합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러시아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 FTA가 체결되면, 유라시아 가치사슬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새로운 유라시아 성장공간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기업의 대EAEU 투자는 양측의 경제규모, 상호 투자역량 및 우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에 비추어볼 때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2015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EAEU의 비중은 0.64%이고, 이 가운데 러시아는 0.38%, 카자흐스탄은 0.25%, 키르기스 공화국은 0.01%의 비중을 각각 차지함.
- ▶ 우리 진출 기업들이 EAEU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권력 및 행정기관의 부패와 행정장벽이며, 그 다음으로 산업 인프라 미비가 많이 지적됨.
  -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 위치한 기업과 물류업체들은 교통 인프라의 낙후 및 부족, 높은 물류비용 등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함.
  - 이밖에도 금융조달의 어려움과 치안 문제가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금융조달 문제는 비교적 많은 기업에 의해 지적되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요인으로 평가됨.
- ▶ 한·EAEU FTA는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확대는 물론 양측의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이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향후 양측은 협력유망산업 발굴, 유망 산업단지 조성 및 대EAEU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각국의 산업경쟁력, 정책, 투자 환경, 기업 수요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EAEU 회원국별로 우리 기업의 유망 산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산업에서 기술이전을 포함한 다각적인 산업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임.

## 1. EAEU 출범과 FTA 추진 현황

■ 소연방 해체 이후 러시아는 구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통합을 도모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 Economic Union) 출범은 구소련 지역에서 경제통합 움직임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임.

- 2010년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함께 3개국간 관세동맹(Custom Union)을 결성한 이후, 2015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 공화국으로 확대하여 경제공동체인 EAEU를 출범시킴.
- 장차 유럽연합(EU)과 같은 공동시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회원국을 타지키스탄 등 유라시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임.

표 1. EAEU의 회원국 개황

회원국	인구(천 명)	영토면적(km2)	GDP(2016년/십억 달러)	가입일
러시아	143,440	17,155,407	1,267.8	2015년 1월 1일
카자흐스탄	17,947	2,724,900	128.1	2015년 1월 1일
벨라루스	9,451	207,595	48.1	2015년 1월 1일
아르메니아	2,991	29,742	10.8	2015년 1월 2일
키르기스스탄	6,059	199,951	5.8	2015년 8월 12일
타지키스탄	8,655	143,100	6.6	가입절차 진행 중

자료: IMF 자료를 토대로 정리.

■ EAEU는 역내 시장통합과 함께 역외 시장에 대해서 FTA 전략을 공세적으로 펴고 있음.

- 베트남과의 자유무역협정은 2015년 5월 체결되었고, 2016년 10월 5일 발효되었음.
- o 베트남이 포함된 ASEAN 차원에서의 FTA 체결 논의도 진행 중이며, 싱가포르와는 2016년 10월 FTA 타당성 연구를 착수하였음.
- 현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페루 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논의하고 있음.

표 2. EAEU의 FTA 추진 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발효	베트남(2015. 11. 체결, 2016. 10. 발효)
의무조항 조정 중	중국(비특혜 조약의 의무조항 승인 2016. 5.)
	이란 이스라엘
잠재 체결국가 (공동연구 및 협상 진행 중, 관심 표명)	이집트
	인도
	캄보디아
	몽골(공동연구 진행 중)

표 2. 계속

진행단계	상대국
잠재 체결국가 (공동연구 및 협상 진행 중, 관심 표명)	페루
	싱가포르(공동연구 진행 중)
	칠레
	한국(공동연구 완료)
	뉴질랜드(2014년 협상 중단)
	ASEAN
기타(시리아, 파키스탄, 요르단, 알바니아 등 추진 중)	

자료: Eveygeny Vinokurov(2017), "Eurasian Economic Union: Current state and preliminary results," Russian Journal of Economics, Volume 3, Issue 1, p. 66 내용과 언론자료 정리.

■ 한·EAEU FTA의 경우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의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민간공동연구를 완료하였으며, 조만간에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됨.

- EAEU 국가들은 협정 체결 시 상호 경제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 관세를 인하하는 전통적인 FTA를 넘어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산업협력 증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2016년 9월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EAEU FTA 체결 관련 협력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최근까지 이와 관련한 양측 정부간 협의가 추진됨.
- o 2016년 10월 5일 모스크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주관으로 ‘한·EAEU 장관회의 및 비즈니스포럼’이 개최되었으며, 협상 개시를 위한 제1차 비공식 협의가 이루어짐.
- o 2016년 11월 9일 서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무역협회와 EEC 주관으로 ‘유라시아 경제포럼 2016’ 발표와 함께 협상 개시를 위한 제2차 비공식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2017년 4월 민스크에서 제3차 비공식 협의가 추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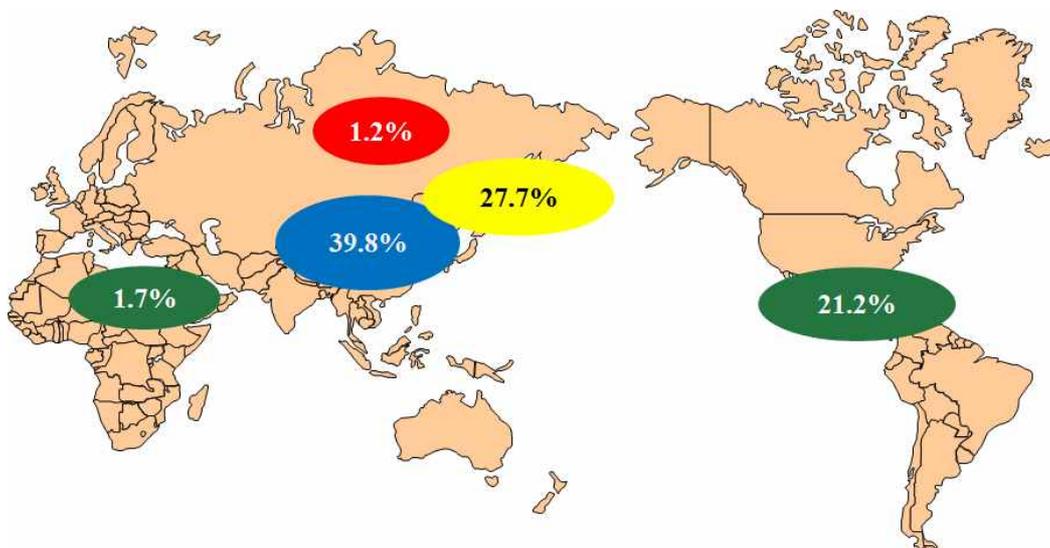
■ EAEU는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이며, 2025년까지 유라시아 연맹으로 심화·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종합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EAEU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
- o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와 한국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해 대중국 경제의존도 감소와 대외경제협력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임.
-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이 세계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바, 한국의 대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한·EAEU FTA 체결이 필요함.
- o FTA 체결을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의 통관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 및 투자분야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인력이동, 수산물 쿼터 확보 등에서 진전을 이룰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능함.
-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도서화’를 탈피하여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유라시아 전략 차원에서 대EAEU 진출전략 모색이 필요함.
- o 러시아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 FTA가 체결되면, 유라시아 가치사슬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새로운 유라시아 성장공간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2. 대EAEU 투자 현황

- 최근 약 62,000개의 해외진출 한국기업들 가운데 2/3 이상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에 진출한 기업의 비중은 극히 미미함.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39.8%가 중국, 27.7%가 중국 이외의 동북아시아, 21.2%가 미주, 1.7%가 아프리카, 1.2%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각각 진출해 있음.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 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743개에 불과함.

그림 1. 한국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분포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2016).

- UNCTAD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은 세계 15대 해외직접투자자국이며, 러시아는 18대 투자대상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음.<sup>1)</sup>
- 2015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76억 달러이며, 러시아는 265억 6천만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함.
- 2015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EAEU의 비중은 0.64%이고, 이 가운데 러시아는 0.38%, 카자흐스탄은 0.25%, 키르기스스탄은 0.01%의 비중을 각각 차지함.
- o 한국은 2015년까지 EAEU에 제조업, 요식업 및 호텔, 건설, 광물자원, 운송 등의 분야에 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1) UNCTAD(2016), *World Investment Report*.

■ UNCTAD의 분석에 의하면, 1990년대 말부터 러시아 경제가 고도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러시아가 세계에서 FDI 유입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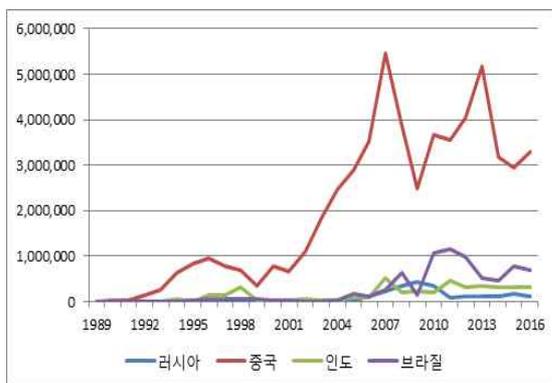
- 2000년 약 27억 달러였던 연간 FDI 유입액은 2005년 144억 달러, 2006년 374억 달러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FDI 유입은 계속 증가하여 2008년 759억 달러에 달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는 278억 달러로 급감함.
- 2013년 들어 FDI 유입은 회복되어 53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서방의 제재와 저유가의 영향으로 2년 사이 81.6% 급감한 98억 달러를 기록함.

■ 2016년 말 기준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 누적총액은 25억 달러를 기록함.

- 2006년 이후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2008~10년에는 연간 3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14년에는 약 1억 7천만 달러, 2016년에는 1억 1천만 달러로 감소함.
- 2016년도 한국의 대러 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0.32%(2014년 0.46%)에 불과하고 브릭스(BRICs)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2.51%(2014년 2.9%)로, 중국(75.0%)은 물론 인도(6.92%), 브라질(15.5%)과 비교할 때도 현저하게 적은 규모임.
- 2015년 러시아가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세계 20위)로 투자 실적이 부진함을 알 수 있음.
- 2016년 말까지 한국의 대러 투자는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가장 많은 14억 5,000만 달러의 투자(60%)가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림 및 어업, 도소매업 등임.

그림 2. 한국의 대BRICs 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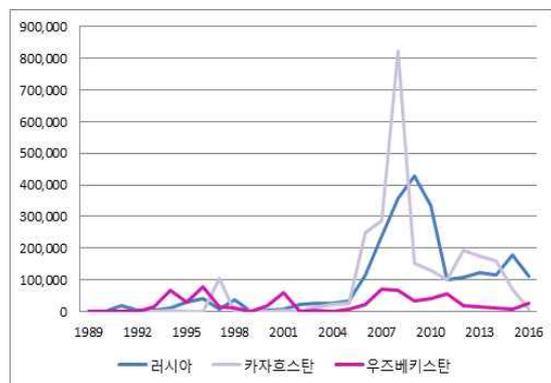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7. 3. 23).

그림 3. 한국의 대CIS 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7. 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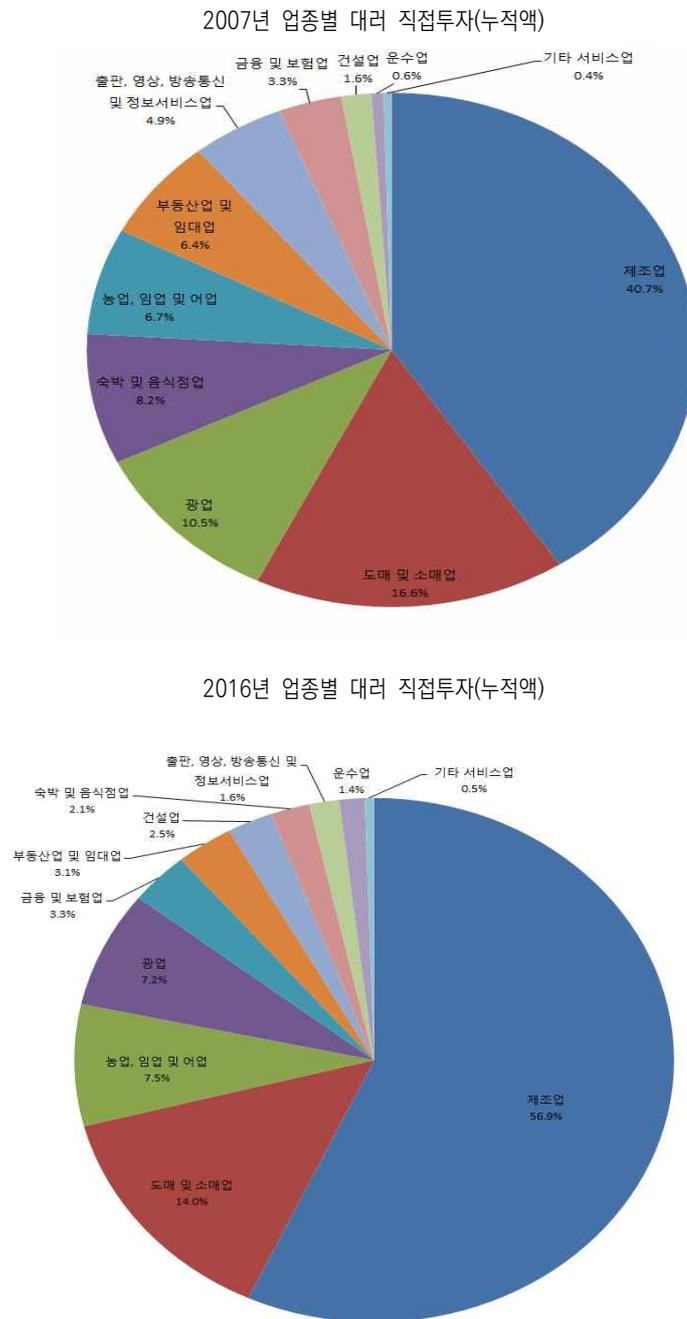
■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나누어 2007년 누적액과 2016년 누적액을 비교해 보면, 양 기간 모두 제조업 부문이 각각 40.7%, 56.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

- 2007년 이후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러 직접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제조업 비중이 2007년보다 2016년에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도매 및 소매업이 여전히 2위를 차지하고, 농업, 임업 및 어업, 건설업, 운수업의 비중이 소폭 증가함.
-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러 진출 신규법인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신규법인 설립 수는 2007년 52개, 2008년 62개를 기록했으나, 2014년 21개, 2015년 18개, 2016년 17개를 기록함.

그림 4. 업종별 대러 직접투자 추세 비교(2007년, 2016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5. 8. 20, 2017. 3. 23).

### 3. EAEU 비즈니스환경

■ EAEU 시장의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2016년 5~8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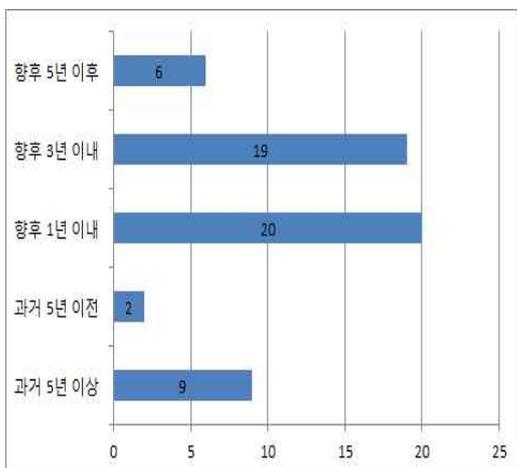
- KOTRA, 무역협회 등에 의해 개최되는 EAEU 투자설명회 참여기업을 비롯하여 EAEU 회원국과 이미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하거나 현지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총 56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함.
-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외에도 2016년 5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 비즈니스환경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국내 구미공단과 구로공단 등에서도 인터뷰를 실시함.

■ 56개 기업 중 11개가 이미 EAEU에 진출한 기업으로 이 가운데 9개 기업은 5년 전에 진출하였으며, 나머지 2개 기업은 최근 5년 이내에 진출함.

- 20개 기업이 향후 1년 이내, 19개 기업이 향후 3년 이내, 그리고 6개 기업이 향후 5년 이후에 EAEU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AEU 회원국 중 27개 기업이 러시아를 진출 희망국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22개 기업이 카자흐스탄 진출을 검토함.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외 나머지 국가들(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편인데, 이는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부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그림 5. EAEU 진출 혹은 진출검토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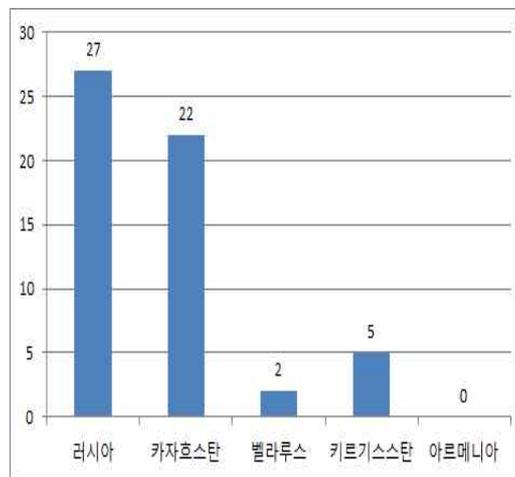
(단위: 개)



주: 응답 기업 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6. EAEU 회원국 중 진출 희망국

(단위: 개)



주: 응답 기업 수.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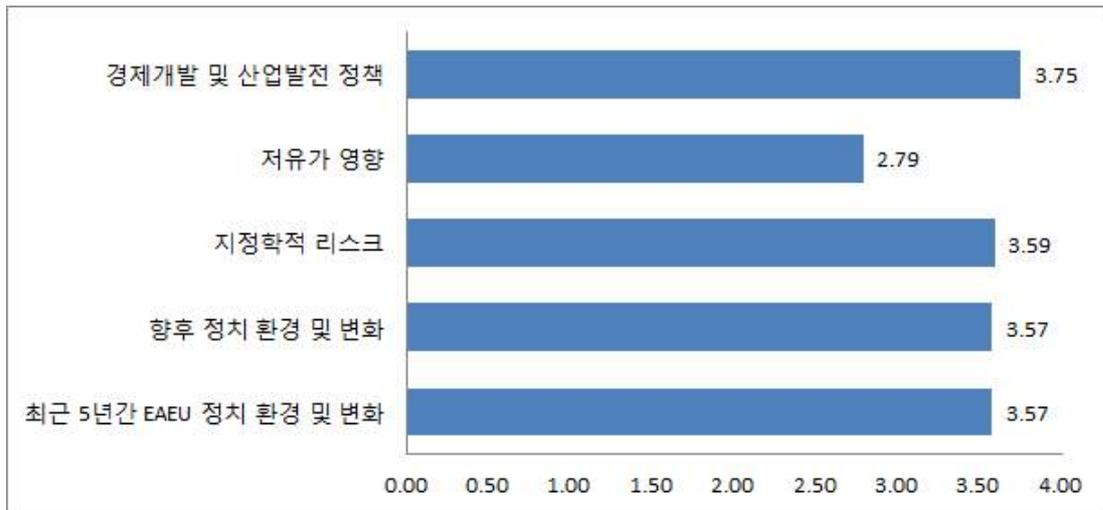
■ 한국기업이 EAEU에 투자진출하려는 동기는 주로 현지 내수시장 진출과 비용절감으로 나타남.

- 주요 진출동기는 내수시장 진출(35개 기업),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절감(28개 기업), 제3국 우회수출(23개 기업), 원자재 및 부품 확보(8개 기업), 자원개발(5개 기업), 현지기술 활용(4개 기업) 등임.

■ EAEU 투자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정책, 저유가, 지정학적 위험, 정치 변화 등 주요 요인별 전망을 평가함.

- 러시아의 현대화 정책을 비롯한 EAEU 각 회원국 정부의 경제개발 및 산업발전 정책의 투자환경에 대한 영향은 '변화 없음(3)'보다 '약간 개선(4)'에 가까운 3.75를 기록, 가장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함.
- 지정학적 리스크, 최근 정치환경 변화 및 향후 변화 가능성 등의 투자환경에 대한 영향은 '변화 없음(3)'과 '약간 개선(4)'의 중간 정도에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미세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저유가 영향은 '변화 없음(3)'에 가까운 2.79를 기록,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조사 당시보다 국제유가가 다소 회복되었는바, 이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림 7. 주요 요인별 EAEU 투자환경 변화 전망



주: 1. 상당히 악화, 2. 약간 악화, 3. 변화 없음, 4. 약간 개선, 5. 상당히 개선.  
자료: 저자 작성.

■ 우리 진출 기업들에게 EAEU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 세 가지를 선정하고 1, 2, 3 순위를 정하도록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권력 및 행정기관의 부패와 행정장벽이 1순위, 2순위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어 전반적으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됨.
- 다음으로 많이 선택된 장애요인은 산업 인프라의 미비로, 1~2 순위에서는 많이 지적되지 않았으나 3순위에서 가장 많은 14개 기업에 의해 지적됨.
- o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 위치한 기업과 물류업체들은 교통 인프라의 낙후 및 부족, 높은 물류비용 등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함.

- 이밖에도 금융조달의 어려움과 치안 문제가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금융조달 문제는 2순위와 3순위에서 각각 8개와 7개 기업에 의해 지적되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요인으로 평가됨.

표 3. EAEU 비즈니스활동의 장애요인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권력 및 행정기관의 부패	16	11	9	36
복잡하고 높은 세율	9	2	3	14
관료주의와 관청의 형식주의로 대변되는 행정장벽	12	10	6	28
마피아, 민족 및 종교 갈등 등으로 인한 치안문제	3	9	6	18
빠른 물가 및 임금 상승 속도	0	6	0	6
금융조달의 어려움	4	8	7	19
노동시장의 경직성(채용, 해고의 어려움)	1	1	1	3
산업 인프라의 미비	4	6	14	24
외국인투자자 보호의 미약	7	3	8	18
기타	0	0	0	0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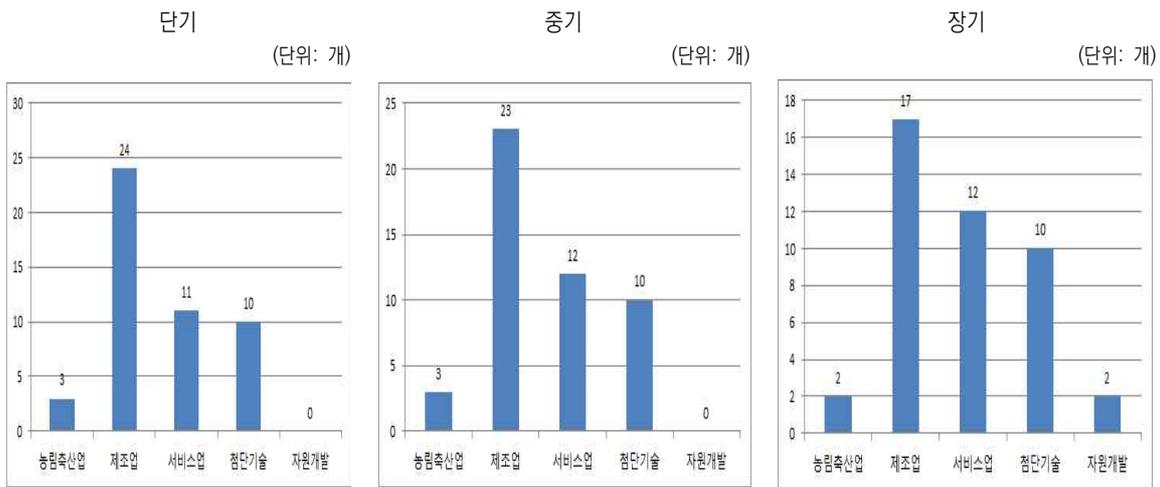
## 4. 전망 및 시사점

■ 한·EAEU FTA는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확대는 물론 양측의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이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향후 양측은 협력유망산업 발굴, 유망 산업단지 조성 및 대EAEU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각국의 산업경쟁력, 정책, 투자환경, 기업 수요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기업이 진출 유망한 EAEU 회원국별 유망산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산업에서 기술이전을 포함한 다각적인 산업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또한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EAEU 회원국별 유망 산업단지를 적극 조성, 해당 산업단지에 특화할 수 있는 특정산업을 발굴 및 제시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도 병행이 가능함.
- 이와 함께 정보 및 네트워크 부족, 언어장벽 등 상대적으로 EAEU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러시아 시장을 예로 들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대러 투자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약 80%이며, 중소기업의 비중은 약 18%에 불과한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법인 설립자금 및 기간이 많이 요구되는 러시아 시장 진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기업들은 대EAEU 유망 투자진출분야로 1차산업에서는 농업 및 축산업, 제조업에서는 식품가공,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서비스업에서는 물류(유통), 건설, 의료 등을 꼽고 있음.
  - 산업별 유망진출분야를 살펴본 결과, 기업들은 단기, 중기 및 장기 모두 제조업 진출이 유망하다고 평가하고 있음(그림 8. 참고).
  -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업과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진출을 전반적으로 유망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농림축산업은 소수만이 유망한 분야로 평가함.
  - 자원개발 진출은 장기 진출유망분야에만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EAEU의 자원개발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제조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진출유망부문을 조사한 결과 전자기기, 소재부품 및 자동차 부품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밖에 식품가공, 미용제품 등도 소수 의견으로 제안됨.
  - 서비스업 중에서는 운송·물류 부문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의료, 금융 등의 부문이 그 뒤를 이음.
  - 기술이전과 관련해서는 특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부문이,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원 탐사/개발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기업들의 강점 및 진출희망분야와 함께 EAEU 회원국별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의 특성, 투자유치 희망분야 등을 종합한 결과 EAEU 국가별 진출유망산업을 [표 4]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그림 8. EAEU 진출 유망분야



주: 제조업- 소비재(화장품, 미용, 패션 등)/식품가공/석유화학/기계·자동차 등, 서비스업-(인프라)건설/운송·물류/금융·부동산/요식/스포츠·문화 등, 첨단기술-기술이전-IT, 우주기술, 자원개발-에너지/금속·비금속 등 원자재, 기타-농수산·임업.  
자료: 저자 작성.

표 4. EAEU 국가별 진출 유망산업

분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공화국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전력 /비전통에너지	절전기기 (스마트그리드)	절전기기 (스마트그리드), 발전, 재생에너지	절전기기 (스마트그리드)		
석유화학	정유/석유화학	정유/석유화학		정유/석유화학	
채굴업/자원개발	채굴업 (석탄)	자원개발	자원개발		자원개발
기계·기기 / 금속공학	조선, 전자기기	금속공학		상업용 운송기기	
건설업		건설업		건축자재	건축기기
식품가공업	식품가공 (해산물), 식품가공기계	식품가공 (육류)		식품가공 (육류, 유제품, 야채)	식품가공 (과일, 와인, 코냑 등 주류)
농축산업	농업, 가축사육	농업 (비닐하우스기술)	관개시설, 종자, 비료, 냉장저장창고	농기계, 비료	농산물 저장 /농약
의약품/의료기기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			의약품, 의료기기
정보통신/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기기, 전자정부	정보통신기기, 전자정부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교통서비스	정보통신 인프라(전자정부)
섬유/가죽		섬유기기	섬유기기		섬유기기
목재가공	목재가공				
관광			관광		

자료: 저자 작성.

■ 우리나라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경제협력 다변화가 절실한바, 향후 러시아를 비롯한 EAEU와의 경제협력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EAEU는 유망한 신흥시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신성장 공간 창출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협력 대상국임.
- 단순히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기존의 협력 틀을 과감히 벗어나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확대 강화, 에너지 자원공급 확대, 산업협력 증진을 통한 협력의 질적 제고를 추구해야 함. KIEP